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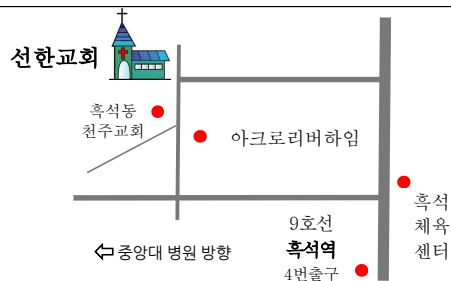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국 내 선교사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전임전도사 김 진 만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교육전도사 윤 영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은 퇴 장 로	협력전도사 오 효 남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고 상 돈, 김 대 희	관 리 장 로	손 석 규
	박 희 태, 유 신 웅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장 로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장 로	조 계 승 (집사장)		
	조 윤 익, 박 영 근		
	윤 호 중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종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맛보아 알지어다 (시34:8)
Taste And See

실 천 사 항 3가지 습관 기록 교사훈련 선교사의 삶

삶 의 방 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고린도전서 14:5)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 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32장 (통일찬송가 48장)
	교 독 문		교독문 34 (시편 81편)
	찬 양 과 경 배		288장 (통일찬송가 204장)
	기	도	박영근 장로
	말 씬 봉 독		고린도전서 14장 1 ~ 19절
	설	교	예언을 더 사모하라 (임춘배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교회여 일어나라
축	도	임춘배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잠언 강해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배 안 내	10월 3일 까지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1. 주일예배: 주일예배는 11시에 영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2. 주중예배: 금요기도회 영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3. 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4. 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2. 개인경건훈련안내	1. 가정예배드리기 2.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일독하기(3차): 이번주 범위 (갈라디아서 1장 ~ 골로새서 4장) 4. 경건서적읽기 5. 부서별 비대면 성경공부	
	3. 코 로 나 1 9 기 도 제 목	1. 열방이 우상숭배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2.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하루 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3.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야가 회복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되도록 기도 합니다. 4. 한국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 도록 기도합니다. 5. 선한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 그리고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6. 선한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합 시다.	
	4. 안수집사(장로) 은 퇴	유신웅 장로님 은퇴 (9월 3일) 그동안 교회를 위해 섬겨주신 수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부서 비대면 수련회 일정	
청소년부	청년부
일정 : 8.1 ~ 9.5 (주일) 주제 : 구약 파노라마	일정 : 9월 5, 12일 주일 오후 2시 주제 : Fulfillment and Process 강사 : 오인숙 선교사

한주간의 기도제목	개인 경건 훈련에 지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의 예배가 회복 되도록
--------------	---

가정예배

서로 봉사하라

찬송 : ‘충성하라 죽도록’ 333장(통 381)
본문 :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 사도 베드로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종말 의식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도 열심히 행할 일은 서로 봉사하는(10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봉사는 하나님과 교회,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섬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봉사와 헌신이 예배입니다. 봉사는 고난 겪는 자,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돕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교회 내 직분자들은 긍휼한 마음으로 구제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마 20:28)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좋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은사에 따라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 봉사합니다. 성도의 봉사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섬기는 일입니다. 성도들은 서로서로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애굽의 경호 대장 보디발 가정의 총무 일을 맡았던 요셉은 선한 청지기였습니다.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의 가정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창 39:5)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은사는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 건강 물질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도 사라지고 정신력도 약해집니다. 그러니 건강한 육신과 정신이 있을 때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해야 합니다.

미국의 소설가 헨리 밀러는 “성공하고 싶다면 봉사하라. 그것이야말로 인생 불변의 법칙이다. 위대한 봉사자, 베푸는 자가 되어라. 그것이 바로 당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왕도”라고 했습니다.

성경 속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를 원망합니다. 또 예수님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봉사의 주인이 자신이 되어, 봉사라는 이름 아래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다 상처받기도 하고 봉사자 때문에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행복의 기술’이란 책에서 봉사는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봉사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봉사하면 행복해지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봉사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인도의 지도자 간디는 “봉사를 위해 보낸 삶이 오직 열매 맺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봉사하며 사는 사람만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은 봉사하면서 죄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봉사하면서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봉사하면서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봉사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주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마 10:8)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말씀

제 목	예언을 더 사모하라 (고전14:1-19)	
서 론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가르칩니다.	
본 론	1. 더 사모해야할 은사	
	(1)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1절)	
	(2) 예언을 사모해야 할 이유: 방언(2절)과 예언(3절)의 차이(4,5절)	
	(3)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낫다(19절)	
결 론	2. 교훈	
	(1)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있는가?	
	(2) 특별히 예언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 자신의 덕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교회의 덕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결 론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박영근 장로	조윤익 장로

매일 Q.T.		인간의 복수심이 사용된 하나님의 기이한 구원	날짜 : 9월 6일
찬양	찬송가 406장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본문	사사기 15:1-13		
말씀요약	아내를 친구에게 주었다는 장인의 말에 삼손은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 해를 달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을 불사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사르자, 삼손은 다시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서 죽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깁니다.		
목상질문 1	블레셋 사람에 대한 삼손의 복수 15:1-8 삼손이 블레셋과 싸운 방식은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운 방식(7:16-20)과 어떤 면에서 유사한가요? 하나님 일에 나는 어떤 대상과 동역하나요?		
목상질문 2	삼손을 블레셋에 넘긴 유다 지파 15:9-13 블레셋의 침입 앞에 유다 지파가 보인 태도는 어떠했나요?(11절) 삶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닥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한절목상	사사기 15장 6절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재산에 큰 손실을 끼친 사람이 삼손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그 책임을 삼손의 아내와 장인에게 전가합니다. 삼손은 상대하기 버거운 적이지만, 그의 아내와 장인은 만만한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약자를 짓밟는 모습은 한 사회의 불의함을 보여 주는 단면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후대하라는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은 영적 성숙함의 척도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인간의 무모해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야말로 비참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지 않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개인성경공부 “부르짖는 자의 샘”	
찬양과 기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새 288, D)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비행기 기장으로 일하시는 집사님과 대화하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기장이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공부해야 하고, 시험을 보고, 체력과 정서의 건강함을 측정하는 테스트를 치러야 합니다. 이 중 한 가지만 부족해도 기장이 될 수 없습니다. 힘들게 모든 과정을 통과해 기장이 되었다 해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기장이 된 후에도 이러한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중 한 가지는 모의 조종석 테스트입니다. 조종석과 똑같은 모형 안에서, 가상 화면과 상황에 따라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기들을 조작하는지 보는 겁니다. 테스트 중에 조종석의 산소를 줄이기도 하는데, 조금씩 줄어드는 산소를 몸의 작은 반응으로 알아내야 합니다. 산소가 서서히 줄어들며 따라 다리에 미세한 경련이 오기도 하고, 눈이 떨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체 반응들이 오는데, 그것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신앙생활이 이 테스트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안에 자아가 커지면서 성령님의 자리가 조금씩 줄어들게 될 때, 이를 즉시 파악하지 못하면 어느새 영적 위기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기 위해서는 내 신앙생활의 어떤 부분이 더 성숙해야 할까요?
말씀 나누기	사사기 15:14~20
묵상포인트	하나님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분의 소유 된 백성(벧전 2:9)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분입니다(사 43:19). 결박당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목마른 자에게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주십니다. 맞서 싸워야 할 대적과 어려운 상황이 눈앞에 있을 때, 성도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삼손에게 능력의 원천은 ‘여호와와 영’이 임한 것이며,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의 간구는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십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유다 사람들에게 결박되었던 삼손이 레히에 이르러 블레셋 사람들과 마주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14~17절)
적용하기	가정, 교회, 일터 등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내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함께 기도하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매 순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움 없이 전진하게 하시고, 제 삶 속에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이 끊임 없이 솟아나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절체절명의 부르짖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날짜 : 9월 10일
찬양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본문	사사기 16:23-31		
말씀요약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에게 제사하며 즐거워하고 삼손에게 재주를 부리게 합니다. 삼손은 집을 지지하는 기둥을 찾아 붙들고는 원수를 갚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삼손이 힘을 다해 몸을 굽히니 집이 무너져 모두 죽습니다.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많습니다.		
목상질문 1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된 삼손 16:23-27 블레셋 사람들이 낫 줄에 묶인 삼손을 보고 한 말은 무엇인가요?(23절)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 내가 피해야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삼손의 부르짖음과 최후 16:28-31 삼손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나타났나요? 부르짖는 자의 소원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간구할 것은 무엇인가요?		
한절목상	사사기 16장 30절 삼손의 최후를 보면 그는 실패한 사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불운한 사사일지언정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사는 아니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죽음으로 완수한 '사명자'였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결과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사명자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 뜻을 좇아 나아갑니다.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다양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남은 인생을 신앙의 흐트러짐 없이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소원합니다. 제 입술과 행보로 하나님 이름이 조롱당하지 않도록 매 순간 붙들어 주소서.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 부르짖어 구하는 '이 시대의 나실인'으로 견실히 살아 내게 하소서.		

매일 Q.T.		주님이 터지게 하신 은혜의 샘	날짜 : 9월 7일
찬양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본문	사사기 15:14-20		
말씀요약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나가며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입니다. 이후 삼손이 심히 목말라 부르짖자 하나님은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 물이 솟아 나오게 하십니다. 삼손이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합니다. 그리고 그 샘을 '엔학고레'라고 부릅니다.		
목상질문 1	라맛 레히 15:14-17 삼손이 레히에서의 승리를 기념해 부른 노래는 어떤 내용인가요?(16절) 내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일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엔학고레 15:18-20 샘물이 솟아난 장소를 삼손이 '엔학고레'라고 불러 기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19절)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나의 내적 갈등은 무엇인가요?		
한절목상	사사기 15장 18-19절 하나님을 찾고 그분 은혜를 구하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타는 목마름 가운데 삼손은 하나님을 향해 구원을 부르짖습니다. 40년만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우물을 터뜨려 삼손을 구원하십니다. 그 물을 마실 때 삼손은 정신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마실 때 살아 있는 존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쌓아 올릴 수 있었음을 깨닫지 못한 채 저 자신을 앞세웠던 교만을 용서하소서.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르짖어 구하지 않으면 목말라 한시도 견딜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명을 따라 걷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매일 Q.T.		빛과 어둠의 위험한 동거	날짜 : 9월 8일
찬양	찬송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본문	사사기 16:1-14		
말씀요약	가사 사람들이 기생에게 들어간 삼손을 잡기 위해 매복하자, 삼손은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을 빼서 메고 헤브론까지 갑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돈을 야궂으며 삼손 힘의 근원을 알아내라고 합니다. 들릴라는 힘의 비밀을 알려 달라고 집요하게 조르고, 삼손은 거짓으로 들어댁니다.		
목상질문 1	삼손과 가사의 기생 16:1-3 삼손이 블레셋 최남단 가사까지 간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이며, 나는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목상질문 2	삼손과 밤의 여인 들릴라 16:4-14 삼손이 가진 힘의 비밀을 알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과거의 실수 중 현재 삶에 교훈으로 삼을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목상	사사기 16장 4-5절 세상을 향한 사랑은 허무한 짝사랑에 불과합니다. 삼손은 늘 사랑할 대상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언제나 문제만 일으켰습니다. 사랑받기를 기대하며 다가가지만, 돌아오는 것은 거짓과 배신, 상처뿐이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과 하나님이라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결정이 우리의 영생을 좌우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세상의 사랑을 붙잡으려다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잃어 가는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닫습니다. 세상을 선망하며 정욕을 좇아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깊이 사로잡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참만족을 누리게 하소서.		

매일 Q.T.		밝혀진 힘의 비밀, 깨어진 하나님과의 약속	날짜 : 9월 9일
찬양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본문	사사기 16:15-22		
말씀요약	들릴라가 날마다 조르자 결국 삼손은 머리가 밀리면 힘이 없어진다고 진심을 드러냅니다. 들릴라가 사람을 불러 잡지는 삼손의 머리털을 밀자 삼손은 힘이 없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눈을 빼고 그를 돛 줄로 맨 후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목상질문 1	힘의 비밀을 밝히는 삼손 16:15-17 삼손에게 있어서 자르지 않은 머리카락은 어떤 의미였나요?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나는 어떤 다짐을 해야 할까요?		
목상질문 2	머리카락이 잘린 나실인 삼손 16:18-22 들릴라의 무릎에 누워 깊은 잠에 빠진 삼손의 모습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요?(사29:10) 내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한절목상	사사기 16장 21-22절 삼손이 가진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상징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삼손은 눈이 빠진 채, 돛 줄에 매여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하지만 삼손과 하나님의 관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밀렸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고, 파괴되었던 나실인 서약이 '다시' 시작됩니다. 사라졌던 하나님 은혜가 '다시' 임한 것입니다. 사라졌던 소망이 작은 변화 속에서 새롭게 피어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거듭된 죄악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심과 그 감격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오기 전에, 죄의 유혹을 즐기며 서성이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제가 누구인지 분명히 깨달아 그 존재에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